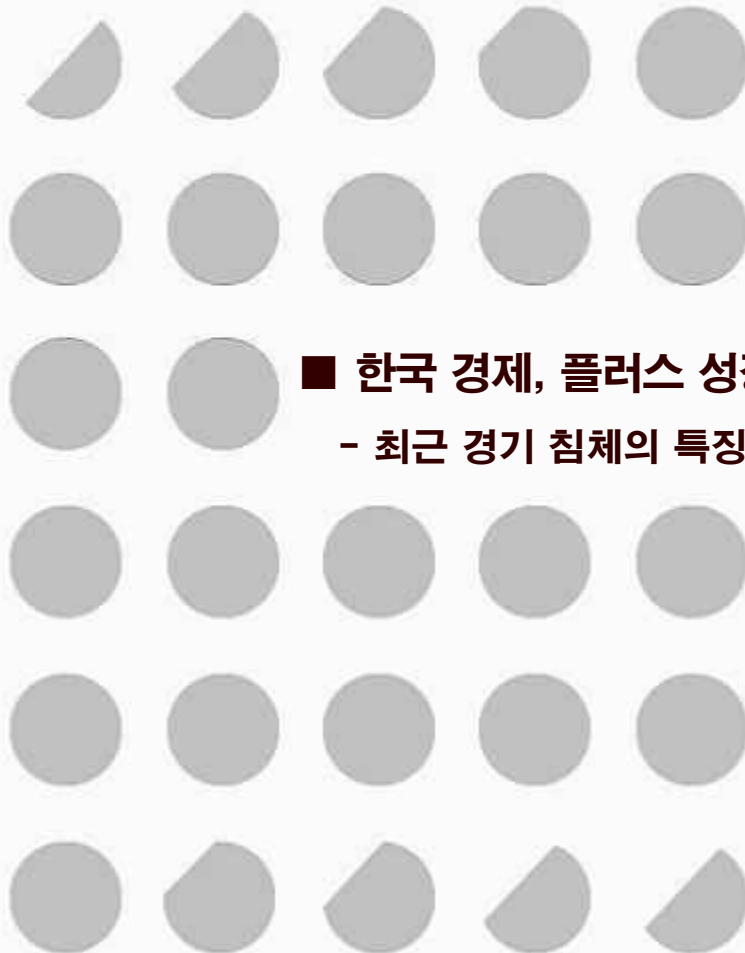


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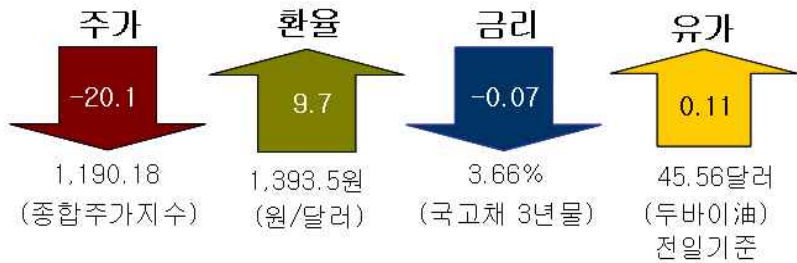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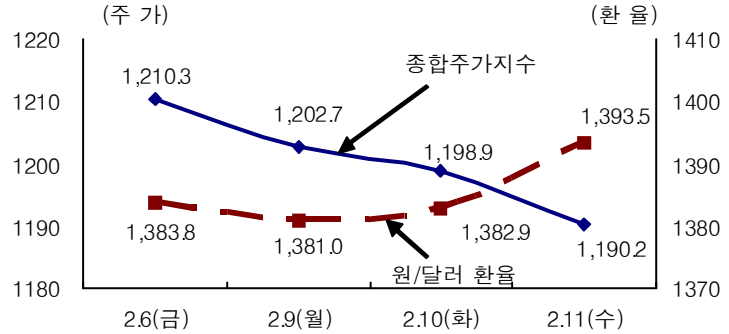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 한국 경제, 플러스 성장도 가능하다
- 최근 경기 침체의 특징과 수정전망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6~2.11)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한국 경제, 플러스 성장도 가능하다
- 최근 국내 경기 침체의 특징과 수정 전망 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실 물 경 제 실 : 이 부 형 연 구 위 원 (3669-4011, lbh@hri.co.kr)
 : 이 성 룡 연 구 위 원 (3669-4457, leesy@hri.co.kr)

Executive Summary

□ 한국 경제, 플러스 성장도 가능하다 - 최근 국내 경기 침체의 특징과 수정 전망

1. 역성장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한국 경제

세계 경제의 침체세가 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실물지표들이 마이너스로 반전되어 한국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2008년 11월 2.2%에서 2009년 1월에는 1.7%p 낮춘 0.5%로 전망치를 대폭 하향 수정하였다. 한편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성장률도 지난 2008년 1/4분기 5.8%로 고점을 기록한 후 4/4분기에는 -3.4%로 급락하였다. 또,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지난 2008년 1/4분기를 정점으로 하락, 4/4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11.5%를 기록하였으며, 출하 증가율도 내수용과 수출용 모두 마이너스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2008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하였다.

2. 국내 경기 침체의 특징

국내 경제는 외환위기보다 빠른 실물 경기 하강 속도, 내·외수 복합 불황 심화, 재고 증가에 의한 급격한 구조조정 위험, 금융 경색 현상 지속, 실업 구조 악화, 서민경제 부실화 확산,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7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외환위기보다 빠르게 실물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광공업 생산은 1970년 1월 이후 최저치인 18.6% 감소를 기록했다. 광공업 출하, 소비자 판매액 등 타 실물지표들도 외환위기 당시 수준 못지않게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한편, 2009년 1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2.8%나 감소하여 외환위기 당시는 물론 IT 버블붕괴 당시인 지난 2001년 7월 수출 감소율 21.2%보다 11.6%p나 낮은 수준으로 급락했다.

둘째, 내·외수 복합불황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계정 상 설비투자는 2007년 2/4분기 이후 부진세를 보여 오다 2008년 4/4분기에는 14% 감소하였으며, 건설투자는 2008년 연중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투자 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2008년 9월 전년동기대비 27.6%의 증가세를 보였던 수출 증가율이 10월 7.8%로 급락한 후 2009년 1월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셋째, 재고 증가세 지속으로 경기 침체 심화 시 급격한 구조조정 위험이 있다. 2007년 4/4분기 5.7%였던 재고 증가율이 2008년 1/4분기 9%, 2/4분기 16.5%, 3/4분기 17.6%, 4/4분기 7%를 기록하여 재고가 누적되고 있다. 향후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재고 과잉으로 인한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국내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넷째, 최근 금융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경색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08년 9월 5.25%였던 정책금리를 5차례에 걸쳐 2.5%까지 인하하고, 21.6조 원의 원화 유동성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자금 경색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CD(91일물) 금리가 최근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나, 회사채 (BBB-) 금리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리차이는 2008년 1월 2.97%p에서 2009년 1월 8.73%p로 확대되었다. 또,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 규모가 2007년 68.2조 원에서 2008년 52.4조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09년 1월에도 3.1조 원 증가에 그쳐 2008년 월평균 4.4조 원보다 낮은 수준에 그쳤다. 더욱이 단기상품에 투자된 자금 규모가 최근 510조 원을 넘는 등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다섯째, 실업구조가 악화되면서 체감실업률이 11%대로 급등하였다. 청장년층 실업의 증가, 임시직 노동자 증가 등 최근 실업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15-29세 청년층의 경우, 2008년 9월 26.3만 명까지 감소했던 실업자가 12월에는 32.4만 명으로 급증, 실업률도 동기간 6.1%에서 7.6%로 크게 상승했다. 40-49세 장년층도 2008년 11월 13만 명까지 감소했던 실업자가 12월 14만 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통계에서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규모는 2008년 5월 516.5만 명에서 8월 497만 명까지 감소하였으나, 2008년 9월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어 2009년 12월에는 508.2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이처럼 **실업구조가 악화되면서 체감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2008년 실제 실업률은 3.3%에 불과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준비자(취업준비를 위한 통학 포함)'와 '쉬었음'을 포함한 광위의 체감실업률은 11.1%이며, 2008년 10월 9.8%에 비해 1.3%p나 상승한 수준이다.

여섯째, 서민경제 부실화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긴급생계지원대상자 수가 점차 증가할 전망으로 서민경제 부실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2008년 8월 5.6만 명 수준이었던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2008년 12월에는 9.3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현재 16.8만 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 긴급생계지원대상자 규모도 향후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곱째, 잠재성장률이 2%대로 급락할 우려가 크다.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계정 상 설비투자는 2007년 2/4분기 이후 부진세를 보이다, 2008년 4/4분기에는 14%나 감소하였으며, 건설투자는 2008년 연중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여기에 최근 수출 경기마저 급랭하면서 2000-2005년 약 5%에 이르렀던 잠재성장률이 2006년 이후에는 4%대로 하락하였다. 특히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2009년에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잠재성장률 이전의 절반 수준인 2%대로 급락할 우려가 크다.**

3. 200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2009년 -2%대로 역성장** : 2009년에 들어서도 세계 경제의 침체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이 불식되지 않아 국내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재정 지출과 금융 완화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외수 복합 불황 현상이 심화되고, 금융 시장 경색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대 이하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 급랭 : 민간소비는 고용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가계 부채 증가와 경기 부진으로 상반기까지 극심한 침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도 정부의 재정 정책 등에 의한 소비 진작 효과와 물가 상승률 하락 등의 희망적인 요인들은 존재하지만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설비투자 극심한 침체 : 대내외 경기 침체와 산업 구조조정의 본격적인 진행 등으로 극심한 침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건설투자 부진 지속 : 민간부문은 여전히 미분양 사태 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크게 호전되기 어려울 것이나, 4대강 유역 정비 등 대규모 SOC 투자 등으로 공공부문은 다소 활성화될 것이다.

물가 하락 : 내수 침체와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으로 비용측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여, 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 세계 경기 동반 침체로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전망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 서비스 수지 개선 등으로 수입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환율 불안정 지속 : 원화 환율은 세계 금융시장 불안, 국내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상반기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하반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누적 등에 의해 점차 하향 안정되는 양상을 보여 2008년 달러 당 평균 1,103.36원에서 2009년에는 1,25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 경제의 플러스 성장 가능성** : 단, 세계 경기가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 완화와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1%p 인하 시 경제성장률은 0.2%p 상승효과가 있고, 재정 지출을 GDP 대비 1% 확대 시 경제성장률 0.3-0.9%p 상승효과가 있다(IMF의 분석결과로부터 추정)고 가정할 경우 금리를 1%p 추가 인하하고, 재정 지출을 GDP 대비 2%(약 20조 원) 정도 증가시킨다면 2009년에 플러스 0% 초반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4. 플러스 성장 과제

현재 한국 경제는 실물, 금융 복합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기업의 실적 악화가 고용 부진을 유발, 가계 부실로까지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에 있어 부분적인 정책 대응이 아니라 경제 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실물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보다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세계 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를 비교(2006년말 기준)해 보면 일본 180%, 프랑스 71%, 독일 69%, 미국 62%, 영국 47%인데 반해 한국은 2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건전하고 양호하다 할 수 있어 재정 지출 확대 여력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GDP의 2% 내외의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지출(약 20조 원)을 통한 경기 부양을 통해 플러스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내수 진작을 위해 경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소득층 소비 증대를 위한 개인 소비세제의 한시적 완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각종 규제 철폐 등으로 국내 투자 여건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엔고 상황에 있는 일본 자금이나 고유가로 축적된 오일머니를 유인하기 위한 '외국인특별 투자지역'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 완화 지속과 금융정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금융 완화 정책의 지속을 통해 재정 정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금리 인하와 함께 금융기관들의 자본 여력 확충 등으로 시중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여 금융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계기업의 퇴출 조기 완료와 경쟁력 확보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기업들의 산업 부문별 교환(스몰딜)을 통한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 구조조정 과정 중 고용 승계 보장 기업들에 대한 세제 할인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다섯째, 서민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 잡 셰어링(Job Sharing) 지원 강화를 통한 고용 유지,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만기 연장과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한 서민 금융활성화, 자영업 컨설팅 지원과 전직 훈련 등과 같은 자영업 대책 강화, 긴급 생계지원자 대책 보강 등을 통해 서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여섯째, 새로운 수출 시장 활로 개척이 필요하다. 내수 경기 자극을 위한 정책들은 시차를 두고 효과가 발생하므로 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인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할 것이다. 엔고 등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 경쟁력에서 앞서고 일본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점을 충분히 살려 수출 시장에서의 마케팅 지원, 정부의 통상 외교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다.

< 2009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2월 11일 현재) >

구 분		2008(E)				2009 수정 전망	
		상반기	3/4분기	4/4분기	전체	전체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5.3	3.8	-3.4	2.5	-2.2	
	최종소비지출 (%)	3.1	1.7	-2.4	1.3	-2.5	
	민간소비 (%)	2.9	1.1	-4.4	0.5	-2.8	
	총고정자본형성 (%)	0.3	1.4	-8.4	-1.9	-3.7	
	건설투자 (%)	-1.2	-1.3	-6.1	-2.7	1.8	
	설비투자 (%)	1.0	4.7	-14.0	-2.0	-11.5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	-53.5	-85.8	75.2	-64.1	110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억 \$)	-68	-79	15	-133	66
		수출 (억 \$)	2,140	1,152	931	4,223	3,613
		증가율 (%)	(20.4)	(27.3)	(-9.9)	(13.6)	(-14.4)
		수입 (억 \$)	2,208	1,231	915	4,353	3,547
증가율 (%)	(29.7)	(43.0)	(-9.0)	(22.0)	(-18.5)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4.7			2.8		
	실업률 (%)	3.2			4.0		
	국제유가(Dubai, 달러)	94.29			55		
원/달러 환율 (원, 평균)		1,103.36			1,250		

□ 한국 경제, 플러스 성장도 가능하다

- 최근 국내 경기 침체의 특징과 수정 전망

1. 역성장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한국 경제

○ 세계 경제의 침체세가 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등 한국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전환 : 지난 1월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2008년 1/4분기 5.8%로 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기 시작한 경제성장률이 4/4분기에는 -3.4%로 급락

<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7년					2008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경제성장률	4.0	4.9	5.1	5.7	5.0	5.8	4.8	3.8	-3.4	2.5

자료 : 한국은행.

- 광공업 생산 및 출하 증가세 급락 : 광공업 생산 뿐 아니라 내외수 출하도 급락하는 등 국내 경기가 급속히 하강하고 있음

· 광공업 생산 증가세 급락 :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지난 2008년 1/4분기를 정점으로 하락, 4/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1.5%를 기록

· 내·외수용 출하 동반 급감 : 출하 증가율도 내수용과 수출용 모두 마이너스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2008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함

< 광공업 생산 및 출하 지표 추이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7년					2008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생산	4.0	6.2	5.9	10.8	6.8	10.6	8.6	5.6	-11.5	2.8
출하	5.1	6.9	5.4	10.4	7.1	8.9	6.3	5.3	-10.2	2.2
내수	4.2	5.7	3.0	6.9	4.9	5.3	1.7	1.7	-11.1	-0.8
수출	6.7	8.7	9.1	16.0	10.2	14.3	13.5	10.5	-8.9	6.8

자료 : 통계청.

2. 국내 경기 침체의 특징

○ (외환위기보다 빠른 실물 경기 하강 속도) 광공업 생산과 수출은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기타 실물 지표들도 빠르게 악화

- 1970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한 광공업 생산 : 광공업 생산은 1970년 1월 이후 최저치인 18.6% 감소를 기록
- 타 지표들도 급속 하락 : 광공업 출하, 소비재 판매액, 설비투자지수, 기계수주 등 타 실물지표들도 5~8개월 만에 외환위기 당시(7~25개월) 직전 최고치에서 최저치로의 하락 폭의 33.5~86.2% 수준에 이를 정도로 급속 악화
- 수출 증가율 급락 : 지식경제부가 지난 2월 2일 발표한 2009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009년 1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2.8%나 감소해, 외환위기 당시는 물론 IT 버블붕괴 당시인 지난 2001년 7월 수출 감소율 21.2%보다 11.6%p나 낮은 수준

< 외환위기와 현재 위기와 실물지표 악화 추이 비교 >

구분		외환위기				현 위기			
		직전 최고치	최저치	변동 폭	도달 기간	직전 최고치	최저치	변동 폭	도달 기간
광 공업	생산	8.8 (’97. 9)	-13.5 (’98. 7)	22.3%p	10개월	8.7 (’08. 7)	-18.6 (’08. 12)	27.3%p	5개월
	출하	11.2 (’97. 8)	-16.3 (’98. 8)	27.5%p	12개월	8.3 (’08. 7)	-15.4 (’08. 12)	23.7%p	5개월
소비재판매액		9.4 (’97. 8)	-21.4 (’98. 7)	30.8%p	11개월	5.4 (’08. 4)	-7.0 (’08. 12)	12.4%p	8개월
설비 투자	설비투자 지수	15.5 (’97. 6)	-49.1 (’98. 6)	64.6%p	12개월	9.9 (’08. 7)	-24.1 (’08. 12)	34.0%p	5개월
	기계수주	16.3 (’97. 6)	-57.6 (’98. 3)	73.9%p	9개월	20.7 (’08. 7)	-38.4 (’08. 12)	59.1%p	5개월
건설 투자	국내 건설 수주	51.7 (’97. 10)	-61.6 (’98. 5)	113.3%p	7개월	18.8 (’08. 5)	-35.4 (’08. 11)	54.2%p	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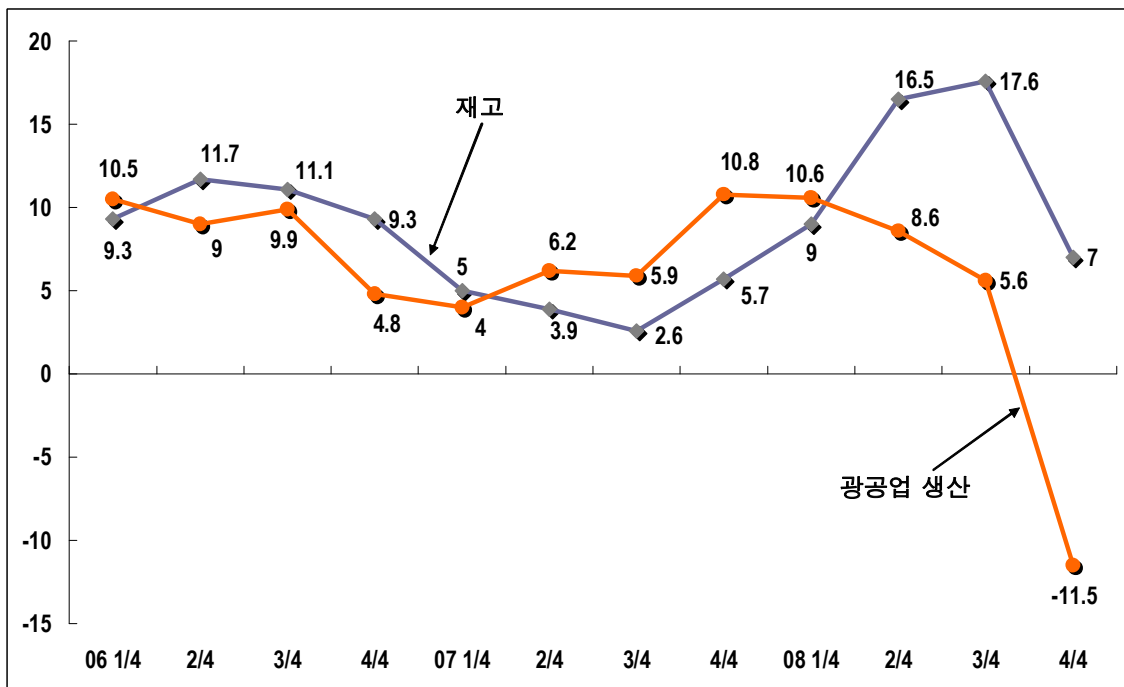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재고 누적 증가) 생산 측면에서의 조정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고 증가세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 심화 시 급격한 구조조정 위험이 상존

- 생산 축소 : 2007년 4/4분기 10.8% 증가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세를 보여 오던 광공업 생산은 4/4분기 들어 11.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급격한 생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재고는 누적 : 반면 2007년 4/4분기 5.7%였던 재고 증가율이 2008년 들어 1/4분기 9%, 2/4분기 16.5%, 3/4분기 17.6%, 4/4분기 7%를 기록, 재고 누적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향후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급격한 산업 구조조정으로 국내 경기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큼

< 광공업 생산 및 재고 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통계청.

○ (내·외수 복합 불황 심화) 투자 부진 지속과 수출 증가율 감소세가 가속화되면서 내·외수 복합 불황이 심화되고 있음

- 투자 부진 지속 : 국민계정 상 설비투자는 2007년 2/4분기 이후 부진세를 보여 오다 2008년 4/4분기에는 14%나 감소하였으며, 건설투자는 2008년 연중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등 투자 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국민계정의 부문별 투자 추이 >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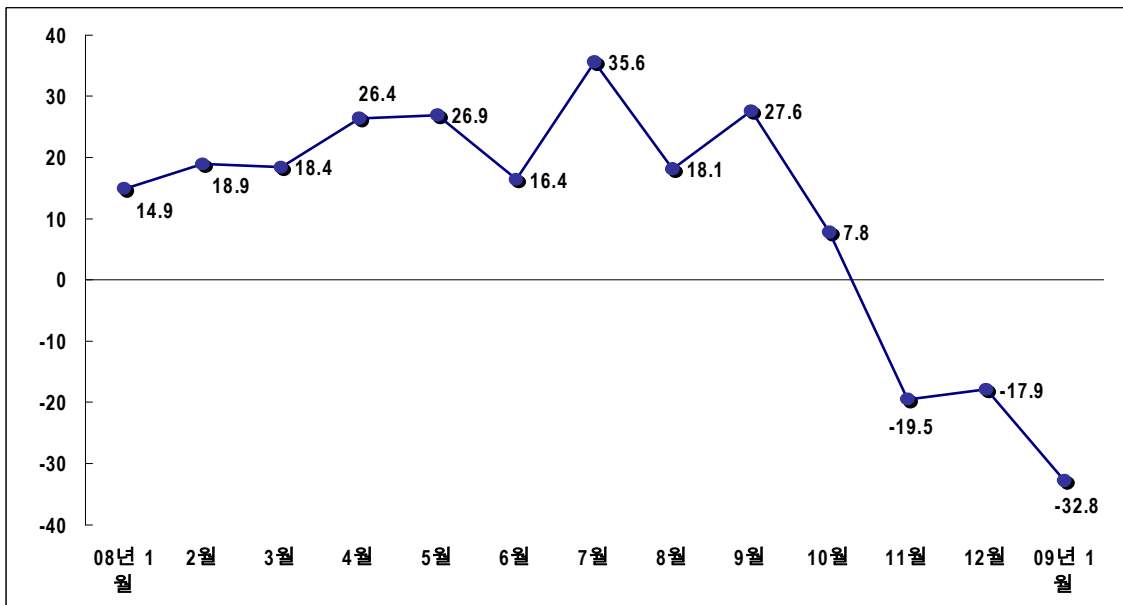
구분	2007년					2008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연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연간
설비투자	10.9	11.0	2.3	6.5	7.6	1.4	0.7	4.7	-14.0	-2.0
건설투자	3.7	1.6	-0.1	0.4	1.2	-1.1	-1.2	-1.3	-6.1	-2.7

자료 : 한국은행.

- 수출 감소세 가속화 : 2008년 9월 전년동기대비 27.6%의 증가세를 보였던 수출 증가율이 10월 7.8%로 급락한 후 2009년 1월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 감소세가 2008년 11~12월 10% 후반에서 2009년 1월 -32.8%까지 감소

< 최근 수출 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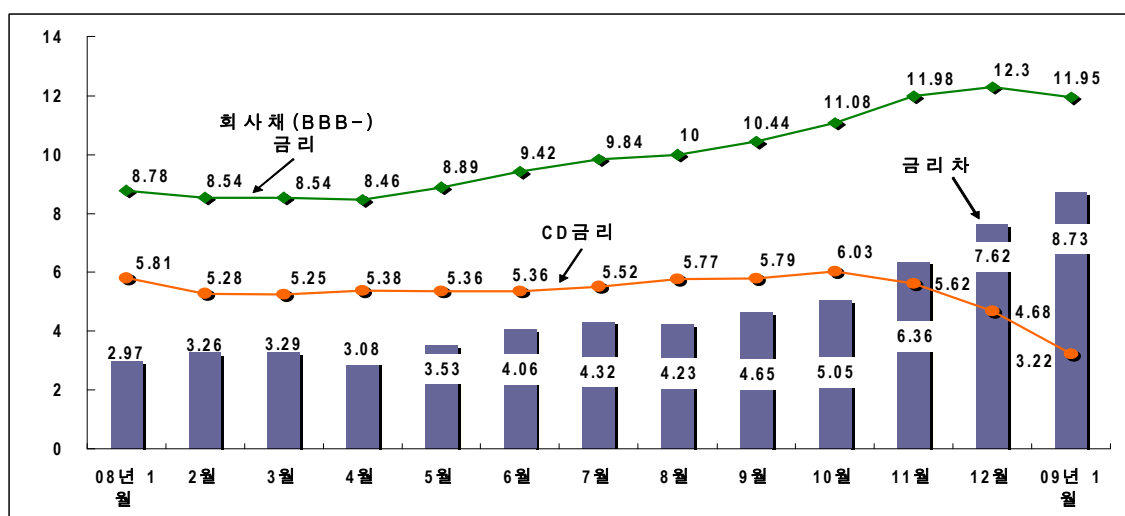


자료 : 지식경제부.

- (금융 경색 현상 지속)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금리 스프레드 차이가 지속되고, 중소기업 대출이 부진한 등 국내 금융 시장 경색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한국은행 원화 유동성 확대 : 한국은행은 지난 2008년 9월 5.25%였던 정책 금리를 5차례에 걸쳐 2.5%까지 인하하고, 21.6조 원의 원화 유동성을 공급
 - 시중 자금 경색 현상 지속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차 지속, 중소기업 대출 부진,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 등으로 시중 자금 경색 현상이 지속
 - 금리 차이 지속 : CD(91일물) 금리가 최근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반면 회사채(BBB-) 금리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리 차이는 2008년 1월 2.97%p에서 2009년 1월 8.73%p로 오히려 확대
 - 중소기업 대출 부진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원화 중소기업 대출 증가 규모는 2007년 68.2조 원(월평균 5.7조 원)에서 2008년 52.4조 원(월평균 4.4조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09년 1월에도 3.1조 원 증가에 그쳐 부진세가 지속
 - 시중 자금 단기 부동화 :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08년말 기준 은행의 수시 입출금식 예금 243.7조 원,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단기투자자금과 증권사의 머니마켓펀드(2009년 2월 6일 현재) 등 단기상품 투자 규모를 모두 합하면 총 516.9조 원에 이릅니다

< CD-회사채 금리차 추이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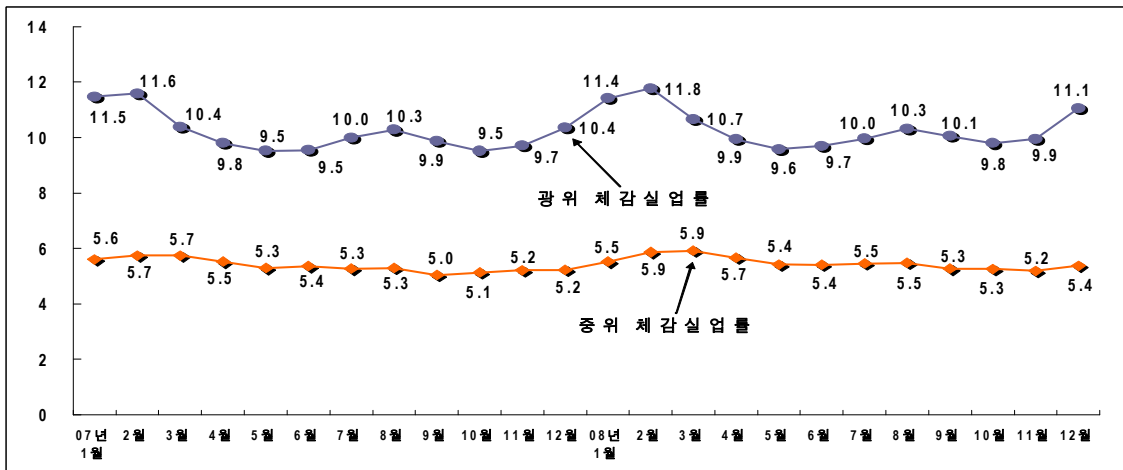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실업 구조 악화) 청장년층 실업의 증가, 임시직 노동자 증가, 체감실업률 상승 등 최근 실업 구조가 악화되고 있음

- 청장년층의 실업 증가 : 15~29세 청년층, 40~49세까지의 장년층에 속하는 계층의 실업이 증가하고 있음
 - 15~29세 청년층 : 2008년 9월 26.3만 명까지 감소했던 실업자가 12월에는 32.4만 명으로 급증. 실업률도 동기간 6.1%에서 7.6%로 크게 상승
 - 40~49세 장년층 : 2008년 11월 13만 명까지 감소했던 실업자가 12월에는 14만 명으로 증가. 실업률도 동기간 1.9%에서 2.1%로 상승
- 임시직 노동자 증가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통계에서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직 규모는 2008년 5월 516.5만 명에서 8월 497만 명까지 감소하였으나, 2008년 9월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어 2009년 12월에는 508.2만 명까지 증가
- 체감실업률 상승 : 실제 2008년 실제 실업률은 3.3%에 불과하지만 광위의 체감실업률은 11.1%까지 상승함
 - 중위 체감실업률 : 한편 '취업준비자'만을 실질 실업자로 고려한 중위 체감실업률도 5.4%로 실제 실업률보다 2.1%p나 높음

< 체감실업률 추이 >

(%)



자료 : 통계청.

- 주 1. 광위 체감실업률=(실업자+취업준비자(취업을 위한 통학자도 포함)+쉬었음)/(경제활동인구+취업준비자+쉬었음)×100.
- 주 2. 중위 체감실업률=(실업자+취업준비자(취업을 위한 통학자도 포함))/(경제활동인구+취업준비자)×100.

○ (서민경제 부실화 확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긴급생계지원대상자 수가 점차 증가할 전망으로 서민경제부실화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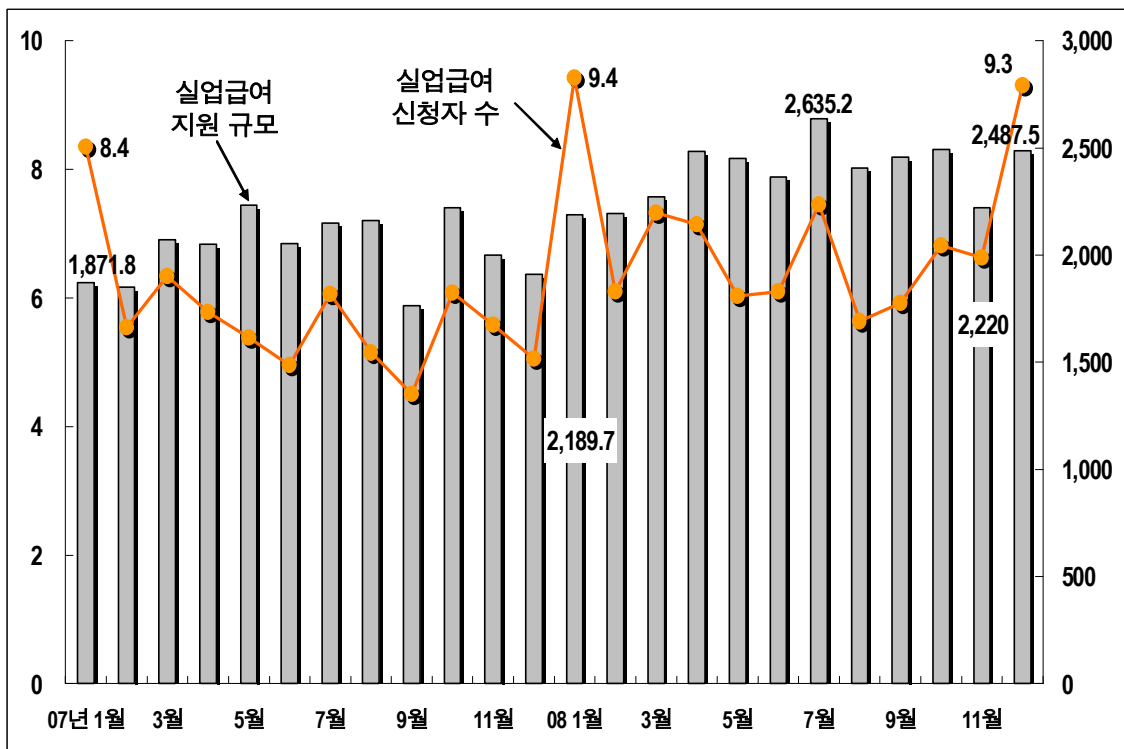
- 실업급여 신청자 수 급증 : 경기 침체로 고용 환경이 악화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
 - 2008년 8월 5.6만 명 수준이었던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2008년 12월에는 9.3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음

- 긴급생계지원대상자 수 증가 전망 : 현재 16.8만 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 긴급생계지원대상자 규모가 향후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실업급여 신청자 수 및 지원 규모 추이 >

(만 명)

(억 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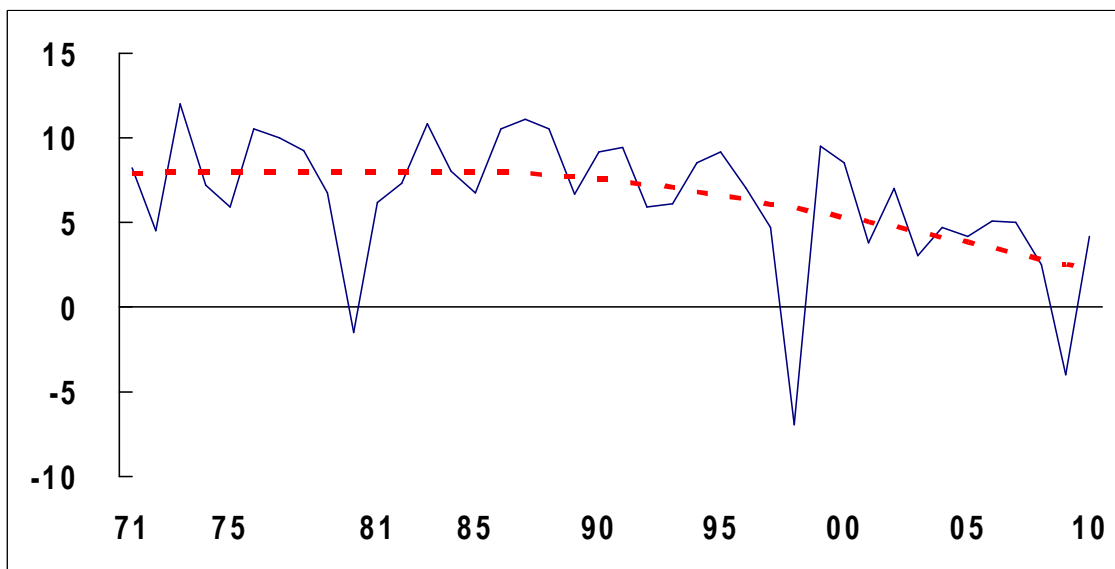
주 :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일치하지는 않음.

○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투자 부진 지속과 수출 증가율 감소 등으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분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잠재성장률 하락 : 투자 부진 지속,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잠재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우려가 있음
- 투자 부진 지속 : 국민계정 상 설비투자는 2007년 2/4분기 이후 부진세를 보여 오다 2008년 4/4분기에는 14%나 감소하였으며, 건설투자는 2008년 연중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등 투자 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잠재성장률 하락 : 2000~2005년 약 5%대였던 잠재성장률이 2006년 이후 4%대로 하락
- 잠재성장률 2%대 급락 우려 고조 :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IMF의 전망과 같이 2009년에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잠재성장률이 2%대로 급락할 우려가 있음

< 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고려한 잠재성장률 추이 >

(%)



자료 : 한국은행.

주 : 2009-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IMF의 전망치인 -4.0%(2009년), 4.2%(2010년)를 이용하였으며,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현대경제연구원.

3. 200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경제성장률

- 2009년 -2%대로 역성장

- 2009년 들어서도 세계 경제의 침체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이 불식되지 않아 국내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음
- 만약, 재정 지출과 금융 완화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외수 복합 불황 현상이 심화되고, 금융 시장 경색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대 이하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

○ 부문별 전망

- **소비 급랭** : 민간소비는 고용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가계 부채 증가와 경기 부진으로 상반기까지 극심한 침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도 정부의 재정 정책 등에 의한 소비 진작 효과와 물가 상승률 하락 등의 희망적인 요인들은 존재하지만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
- **설비투자 극심한 침체** : 대내외 경기 침체와 산업 구조조정의 본격적인 진행 등으로 극심한 침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민간 건설투자 부진 지속** : 민간부문은 여전히 미분양 사태 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크게 호전되기 어려울 것이나, 4대강 유역 정비 등 대규모 SOC 투자 등으로 공공부문은 다소 활성화될 것임
- **물가 하락** : 내수 침체와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으로 비용측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여, 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경상수지** : 세계 경기 동반 침체로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전망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 서비스 수지 개선 등으로 수입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환율 불안정 지속** : 원화 환율은 세계 금융시장 불안, 국내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상반기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하반기 이후 경상수지 적자 흑자 누적 등에 의해 점차 하향 안정되는 양상을 보여 2008년 달러 당 평균 1,103.36원에서 2009년에는 1,25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한국 경제 플러스 성장 가능성

- 세계 경기가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 완화와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플러스 성장도 가능할 것임
 - 금리 1%p 인하 시 경제성장률은 0.2%p 상승효과가 있고, 재정 지출을 GDP 대비 1% 확대 시 경제성장률 0.3~0.9%p 상승효과가 있다고 가정
 - 금리를 1%p 인하하고 재정 지출을 GDP 대비 2% 정도(약 20조 원) 추가시킨다면 2009년에는 플러스 0% 초반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시나리오별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 >

시나리오	정책 효과	예상 경제성장률 수준
1. 현 상황 유지 시	· 소비, 투자, 수출 부진 지속	· -2%대~
2. 금융 완화+재정 지출 확대 (금리 1%p 인하, 재정 지출 GDP 대비 2~3% 증가 시)	· 금리 인하 효과: 1%p 인하 시 GDP 성장률 0.2%p 상승 · 재정 지출 효과: GDP 대비 1% 확대 시 GDP 성장률 0.3~0.9%p 상승	· 플러스 0% 초반

주 1. 금리 1%p 인하 시 GDP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은행(2004년 11월), 「금리변동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석한 금리 1%p 인하가 기업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2005년 산업연관표 상의 설비투자의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산출함.
 2. 재정 지출 효과는 IMF, 'Group of 20', Meeting of the Deputies January 31-February 1, 2009, London, U.K.의 재정지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함.

< 2009년 수정 경제 전망(2월 11일 현재) >

구 분		2008(E)				2009 수정 전망	
		상반기	3/4분기	4/4분기	전체	전체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5.3	3.8	-3.4	2.5	-2.2	
	최종소비지출 (%)	3.1	1.7	-2.4	1.3	-2.5	
	민간소비 (%)	2.9	1.1	-4.4	0.5	-2.8	
	총고정자본형성 (%)	0.3	1.4	-8.4	-1.9	-3.7	
	건설투자 (%)	-1.2	-1.3	-6.1	-2.7	1.8	
	설비투자 (%)	1.0	4.7	-14.0	-2.0	-11.5	
대 외 거 래	경상수지(억 \$)	-53.5	-85.8	75.2	-64.1	110	
	통 관 기 준	무역수지(억 \$)	-68	-79	15	-133	66
		수출(억 \$)	2,140	1,152	931	4,223	3,613
		증가율 (%)	(20.4)	(27.3)	(-9.9)	(13.6)	(-14.4)
		수입(억 \$)	2,208	1,231	915	4,353	3,547
증가율 (%)	(29.7)	(43.0)	(-9.0)	(22.0)	(-18.5)		
기 타	소비자물가(평균, %)	4.7				2.8	
	실업률 (%)	3.2				4.0	
	국제유가(Dubai, 달러)	94.29				55	
원/달러 환율 (원, 평균)		1,103.36				1,250	

4. 플러스 성장 과제

○ (총체적 대응 체제 구축) 이번 경제 위기는 외환위기와는 달리 국내 금융과 실물 부문 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로 외수 시장 환경까지 동반 악화시킴으로써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 국가 차원의 총체적 대응 체제 구축이 시급함

- 현재 한국 경제는 실물, 금융 복합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기업 부문의 실적 악화가 고용 부진 현상을 유발, 가계 부실로까지 이어질 위험한 상황에 있어 부분적인 정책 대응이 아니라 경제 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함

○ (대대적인 재정 지출 확대) 실물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보다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최근 내수는 물론 외수마저 급격히 침체되면서 국내 실물경제가 내·외수 복합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데 외수 부문은 국내 정책의지로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우선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자극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 세계 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를 비교(2006년말 기준)해 보면 일본 180%, 프랑스 71%, 독일 69%, 미국 62%, 영국 47%인데 반해 한국은 2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건전하고 양호하다 할 수 있어 재정 지출 확대 여력이 충분함¹⁾

1)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08』, 2008년 5월 참조.

- 따라서 GDP의 2-3% 내외의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을 통해 플러스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것이 중요함
- (내수 진작을 위한 경제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고소득층 소비 증대를 위한 개인 소비세제의 한시적 완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각종 규제 철폐 등으로 국내 투자 여건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함
 - 특히 엔고상황에 있는 일본 자금이나 고유가로 축적된 오일머니를 유인하기 위한 '특별투자지역'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정책의 효율성 제고) 한국은행의 금융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중 자금이 단기 부동화되면서 시중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금융 정책의 경기 자극 효과가 미미해 금융정책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함
 - 금융 완화 정책의 지속을 통해 재정 정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
 - 금융기관들의 자본 여력 확충 등을 통해 시중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는 등 시중 유동성 부족 현상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적절한 대응을 통해 금융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업 구조조정 촉진)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전반의 부실 정리 및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경기 침체 지속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실업 증가, 투자 부진, 소비 침체 가속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진제적인 구조조정 대안 마련이 시급함
- 한계기업의 퇴출 조기 완료와 경쟁력 확보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기업들의 산업 부문별 교환(스몰딜)을 통한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 구조조정 과정 중 고용 승계 보장 기업들에 대한 세제 할인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 (서민 생활 안정 지원 강화) 새로운 생계 불안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대책 수립

- 잡 셰어링(Job Sharing) 지원 강화를 통한 고용 유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만기 연장과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한 서민 금융활성화, 자영업 컨설팅 지원과 전직훈련 등과 같은 자영업 대책 강화, 긴급 생계지원자 대책 보장 등을 통해 서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함

○ (새로운 수출 시장 활로 개척) 내수 경기 자극을 위한 정책들은 시차를 두고 효과가 발생하므로 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인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할 것임

-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 경쟁력에서 앞서고 일본에 대해서는 원/엔,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에 있어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점을 충분히 살려 수출 시장에서의 마케팅 강화, 정부의 외교적 노력 등을 통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동 산유국들이나 동남아시아 신흥개도국들의 경우 타 지역보다 높은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개발을 위한 수요 또한 잠재되어 있어, 이를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적 패키지딜을 이용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을 통해 수출 급락 현상의 장기화를 방지해야 할 것임